



GS칼텍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지역사회 가치 창출

GS칼텍스는 '에너지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GS칼텍스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아동 심리 치유 프로그램인 '마음톡톡' 사업과 지역 예술 발전 사업인 '예술마루' 사업, 지역 사회 복지사업, 사회 봉사단활동, 어린이 환경교육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모두 임직원의 정기적인 기부와 자발적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톡톡'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2013년 시작한 마음톡톡 사업은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자아와 사회성을 증진하는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지난 6년간 전국의 1만5천458명에 이르는 아동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집단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더해 미술, 연극, 무용 동작, 음악 등 예술치유 매체를 통한 활동해 아동의 자존감을 키우고 사회성을 높여주는 게 특징이다.

교수 10명의 감독 아래 160여명의 마음톡톡 예술치료사들이 교육과 임상 감독을 받으며 역량을 키워왔다. 또 2015년부터는 심리변화 측정 진단 도구를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문 프로그램으로 개

발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마음톡톡이 자아(자아 존중감, 자기 성장 주도성)와 사회적 기술(자기표현, 공감, 협력)을 끌어올려 학교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음톡톡 사업의 하나로 교육부의 '위'(Wee) 프로젝트와 굿네이버스 좋은 마음센터 등과 연계해 초·중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치유와 공감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학교 현장에 찾아가거나 각 지역센터에서 예술치유를 진행하는 '센터치유' 프로그램 등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또래관계 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함께 도모하는 '교실힐링' 프로그램도 마련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년간의 성과와 축적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남동부지역 연합회와 협력해 보호관찰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과 재사회화를 돕고 있다.

심리적 외상 후 위기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및 피해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여러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다.

마음톡톡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음톡톡 사업 재원의 일부는 40%가 넘는 GS칼텍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후원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마련돼 더욱 의미가 깊다.

남해안 문화예술의 랜드마크 'GS칼텍스 예술마루'

GS칼텍스는 GS칼텍스재단을 통해 '여수문화예술공원 GS칼텍스 예술마루' 조성 및 운영사업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 예술마루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에 걸맞은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GS칼텍스재단이 여수시와 함께 여수시 망마산과 장도 일원의 21만2천여 평의 부지에 약 1천100억원을 투자한 복합문화 예술공간이다.

2012년 5월 개관한 예술마루는 1천21석의 대극장, 302석의 소극장, 기획 전시장, 해안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개관한 이래 2018년 12월까지 공연 1천2회, 전시 74건을 진행해 총 72만2천여 명의 지역민이 예술마루를 찾았다. 이 중에는 문화소외이웃 나눔 차원에서 초청한 인원 1만5천여 명이 포함돼 있다. 예술마루는 명실공히 남해안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술마루 2단계 사업인 장도 조성사업은 2019년 중 마무리된다. 9만4천 843㎡(28,690평) 규모의 장도 조성사업을 통해 '예술가 및 시민들의 참여로 꾸꾸어가는 예술의 섬'을 콘셉트로, 전시, 교육, 체험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전시장과 작가들이 작품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창작스튜디오 등이 들어선다.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

GS칼텍스는 2008년부터 매주 5일간(월~금) 일평균 350여 명의 여수지역 결식 우려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GS칼텍스 사랑나눔터'를 운영해 2018년까지 총 86만여 식의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GS칼텍스 사랑나눔터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임직원부인회, 퇴직사우회 봉사대, 지역 자원봉사대 등 30여 개 단체가 교대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하루 평균 18명의 봉사자가 참여한다. 지난 11년간 누적 봉사자 수가 총 4만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



마음톡톡 프로그램 현장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이 꿈과 비전을 키우도록 2010년부터 여수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꿈키움, 기후 환경교육, 문화 예술 교육, 역사교육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함께 하는 'GS칼텍스 희망에너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내 고장 역사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동들이 지역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고 있다. 결과물로 여수시 충무동 벽화골목에 대형 타일벽화를 설치했다.

이밖에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2007년부터 여수시 남면 소재 5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GS칼텍스 도서학교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GS칼텍스 사회봉사단'

GS칼텍스는 임직원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력 사업장이 있는 여수를 중심으로 'GS칼텍스 사회봉사단'을 발족해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물류센터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23개의 봉사대가 조직돼 사업장 인접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지역맞춤형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경로식당 배식 등의 식사 지원, 복지기관 개보수 등의 시설 정비, 장애인 나들이 등의 문화 활동, 친수공간 환경 정화 등 매월 8차례의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GS칼텍스 임직원의 가족들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조직된 '가족 봉사단'은 집 근처 복지시설에서 평일, 주말 원하는 시간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휴가 기간에 여행 대신 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개별봉사대 외에 전사 차원의 봉사활동도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매년 5월에는 회사 창립을 기념해 전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추석 즈음에는 한가위 온정 나누기 행사를 통해 여수지역 소외이웃에게 1억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을 지원해 왔다. 또 연말에는 난방용품 전달,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 등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어린이 환경교육'

GS칼텍스는 2012년부터 환경재단과 함께 초등학생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올바른 에너지 사용 방법 등에 대해 가르치는 그린에너지스쿨을 열고 있다.

아이들이 흥미롭게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 전문 키트(Kit)인 '아슬아슬 지구'를 개발해 환경교육 전문 강사가 일선 학교들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GS칼텍스 여수공장과 인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장 주변의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